

달라진 외국인 관광객... 대량 구매 줄고 쇼핑 채널 다변화

1월~8월 방한 외국인 21.6% ↑
개별 관광객 중심 소비구조 변화
면세점, K-패션 등 상품군 확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면세점의 매출 회복은 더디다. 외국인 면세점 구매객이 전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반면 매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1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면서 면세점 외국인 고객 수의 증가했지만 핵심 고객층 변화와 원화 약세 장기화로 도리어 객단가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면세점 구매객 증가세는 방한 관광시장 회복과 맞물려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방한 외국인은 1504만84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도 14조180억원으로 48.5% 늘었다.

그러나 방한 외국인 수 증가에도 면세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방한 외국인 증가에도 오히려 객단가가 떨어지면서 면세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업계는 수혜를 입지 못했다. 도리어 방한 외국인 수 대비 매출이 따라 오르지 못하면서 외국인 면세점 객단가도 올해 들어 빠르게 줄었다. 1월 방한 외국인 수는 126만5658명, 객단가 83만4699원이었으나 8월에는 224만5293명으로 77.40%로 폭증했는데 객단가는 도리어 57만863원으로 31.61% 감소했다. 지난해 8월 대비해서는 73만5520원에서 올해 8월 57만863원으로 22.39% 감소한 수치다. 반면 구매객은 같은 기간 94만2429명에서 138

만6530명으로 47.1%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면세점의 핵심 고객층이 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거 국내 면세점은 중국 단체관광객과 다이공의 대량 구매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다이공 비중이 축소되고 개별관광객이 늘면서 대량 구매 수요가 감소했다. 개별관광객은 면세점에서 명품과 화장품 등 대량 구매하기보다 백화점과 쇼핑몰, 로드숍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상반기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

서 면세업계의 타격이 더 커졌다. 올해 1~8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63.24원에 달했다. 특히 5월 1500원대를 넘어선 월 평균 환율은 6월 1541원대까지 상승했다. 이 탓에 일정 시기에는 면세점 가격이 백화점 가격을 역전하면서 면세 쇼핑의 장점이 퇴색했다.

면세업계도 변화한 소비패턴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과거 명품 할인과 단체관광객 유치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K패션과 K뷰티, 식품 등 상품군을 확대하고 개별관광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명동본점에 LF의 패션 브랜드 '헤지스' 단독 매장을 열고 정관장과 협업한 상품을 선보였다. 신세계면세점은 K뷰티 중심이던 상품 구성을 K푸드와 K패션, 신규 디자이너 브랜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대면세점은 무역센터점에서 더마 뷰티 브랜드를 모은 K뷰티 편집숍 '스킨랩 서울'을 운영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1면 '눈덩이처럼 불어...'서 계속

에너지믹스 등 정책 시험대

12차 전기본 정부안 확정도 늦어지고 있다. 신규 원전의 역할을 정하기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속의과정이 당초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학습·숙의토론을 거쳐 12월께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15년간의 전력 공급 밑그림을 그리는 이 계획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 C), AI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변수를 모두 담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특히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순차 폐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그 공백을 LNG 발전을 늘릴지,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더 끌어올릴지를 둘러싼 논쟁이 12차 전기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발전설비를 아무리 늘려도 전력을 필요한 곳까지 보낼 송전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호남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처럼 새 산업단지는 대체로 기존 전력망이 촘촘하지 않은 지역에 들어선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력다소비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과 계통 보강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매가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따라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전력수요 증가 자체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가까워졌다. 남은 질문은 그 전력을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 어디로 보낼 것인가다. 아울러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에너지믹스 논쟁, 반도체 클러스터의 또 다른 뇌관인 '물' 문제도 이어진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스마트폰 제조사, 가격 인상·프리미엄 제품 확대 움직임

삼성 S27 시리즈 출고가 인상 검토
애플 LG전자 스마트홈 협력 논의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사업에서 수익성과 수요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삼성전자는 부품 원가 상승으로 적자 확대가 우려되고, 애플은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의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양사는 가격 인상과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7 시리즈의 출가를 당초 계획보다 10만원 이상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갤럭시 S26 시리즈의 국내 출가를 출시 약 7개월 만에 인상했다. 256GB 기준 일반·플러스·울트라 모델의 가격은 각각 14만9600원 올랐다.

가격 인상 움직임은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는 지난 2분기 약 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한 데 이어 3분기에도 1조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제품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 지난 8월 출시된 갤럭시 Z8 시리즈는 국내 사전판매에서 144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최다 사전판매 기록을 세웠다.

애플은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의 부품 주문 축소 보도가 나오면서 신제품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닷케이아시아는 애플이 일부 협력사에 아이폰18 프로와 프로맥스용 부품 생산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보

도했다. 부품 주문 축소의 배경으로는 신제품 가격 인상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애플은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와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를 선보이며 고가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마트홈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LG전자와 스마트홈 기기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2026
부산 북구 평생학습 도시 지정 10주년

평생학습 공연 · 초청 공연 · 체험부스 · 전시

제16회 부산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

10/24 토
10:00-17:00
대천천 화명1교
야외 무대 일원

부산광역시 북구

문의 051) 309-4162
부산 북구 학사로 128 부근 · 화명고등학교 후문 건너편